

뉴스홈 | 최신기사

# 브라질 리우 빈민가 확산방지 '장벽쌓기'

송고시간 | 2009-03-30 08:35



김재순 기자

기자 페이지

<브라질 리우 빈민가 확산방지 '장벽쌓기'>인권단체 "빈곤층 차별정책" 비난 제기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정부가 중남미 지역 최대 규모로 형성돼 있는 빈민가의 확산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장벽을 쌓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우 주정부 관계자는 전날 "빈민가가 도심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콘크리트 장벽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리우 시 남부지역에 위치한 2개 빈민가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지난해 11월 마약밀매 및 폭력 조직 단속에 나선 경찰에 의해 장악돼 있는 상태다.

빈민가 콘크리트 장벽 설치 작업은 인권·사회단체로부터 "빈곤층에 대한 차별 정책이자 브라질 사회의 계층 간 위화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리우 주정부는 "빈민가를 정비하고 자연 숲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 차별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모든 빈민가를 대상으로 주택 건설 등을 추진해 빈곤층의 생활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증거"라고 반박했다.

리우 주정부는 올해 말까지 4천만헤알(약 1천745만달러)을 투입해 19개 빈민가에 11km의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고 550가구를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빈민가 문제는 브라질 연방정부나 리우 주정부에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빈민가 대부분이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여름철 우기 때마다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이 무단으로 숲을 없애면서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허술하게 주거지를 조성한 탓이다.

2014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권을 따낸 데 이어 2016년 하계올림픽의 리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자소굴로 통하는 빈민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한 상황이다.

리우 시에는 1940년대부터 빈민가가 조성되기 시작해 현재는 750개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00여곳에서 마약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리우 빈민가는 코만도 베르멜료(CV), 테르세이로 코만도(TC), 아미고스 도스 아미고스(ADA) 등 3대 마약조직이 장악한 채 서로 영역다툼을 벌이면서 충돌을 일으키거나 경찰과 수시로 총격전을 벌여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fidelis21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3/30 08:35 송고



## 핫뉴스 →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산'  
기네스북 등재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마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 체포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 체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정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아우 방위  
링크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2년1개월 만

尹당선인 "경제 복합위기 징후 뚜렷...물가상승 장기화 대비해야"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57
- 2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7
-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1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

56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41

뭐하고 놀까? #홍→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총

계약사/제휴문의